

우울한 송년소회.. 눈앞의 미래가 두려운 시간

글 | 김갑수 _ 문화평론가 dylan@unitel.co.kr

참으로 길게 느껴지는 한해였다. 사적 관심사를 넘어 국가 차원의 문제나 세계의 동향에 대해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가져본 것이 대학시절 이래 또 있었을까 싶다. 한해 내내 즐거운 일이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최악의 현실이 당장 눈앞에 닥쳐온 것도 아니었다. 무어랄까, 2008년의 끝자락에서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심리기제인 공포, 그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웰빙 유행이 언제 적 일이었나. 느리게 살기, 로하스 운동, 자발적 가난 같은 풍조가 어느 먼 전설의 이야기였던가. 돌이켜 보니 좋은 줄도 모르고 흘러보낸 좋은 시절이었다. 마치 미리 끊어놓은 티켓을 들고 예정된 코스를 통과하듯이 선진국 열차를 타게 되는 줄 알았다. 동네 마실 가듯 해외관광을 다녀오고 더러더러 명품도 사보고 펀드도 가입하고 웬만한 집안 아이들은 쉽사리 유학이나 교환학생 체험을 하고 뜻있는 사람들은 '벌쌍한' 저개발국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만 알았다. 어떤 전문가도 관료도 지식인도 2008년에 벌어진 일들을 그 이전에 예견하거나 경고하지 않았다.

공포감의 핵심은 물론 경제문제다. 기업 줄도산에 부동산 붕괴로 미증유의 경제 대공황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사람들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든다. 어떤 이는 수치와 통계자료를 들이밀고 또 어떤 이는 국제정치학을 원용한다. 내년 봄 이 땅에 엄청난 경제재앙이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 속에는 정치권력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서려 있다. 눈앞의 미래가 두려운 시간의 초침이 짹짹 달려가고 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 사회갈등

한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미국에는 새 대통령 당선자가 나온 한해였다.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은 불만의 총합을 상쇄하는 새로운 기대치의 설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새 리더십은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 철저한 시장주의를 표방한 것이었고 미국의 경우는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성과 국가기능의 강화를 추구하지는 것이었다. 두 동맹국가 간의 리더십은 정반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은 물론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행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시작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쳐야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는 대외종속에 대한 항의의 전통에 닿아 있고,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 대한 분노는 사회정의에 대한 목마름의 반영이었다. 하지만 자주도 사회정의도 더 많은 경제성장의 욕망을 이길 수 없었다. 사상초유의 득표율로 선출해 놓고 곧장 반대하는 행위는 자기모순에 불과했다. 나는 찬성하지 않았고 투표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시민사회는 비겁했다. 그 외중에 느닷없이 송래문은 불타 버렸고 그것은 닥쳐올 재앙에 대한 주술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금강산 관광객의 어이없는 피격사망 사건은 우리가 누려온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놓여진 것인지를 일깨워 주었고 우울증에서 기인한 유명인들의 잇따른 자살은 세간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결정타는 물론 미국발 금융위기였다. 리만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상징되는 월가의 붕괴양상은 흡사 번영의 종언을 선언하는 듯 전세계적인 파급효과를 낳았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증시 지표가 추락한 한국은 그 영향권 가운데서도 악성의 사례에 해당했다.

10년 전에 닥친 외환위기도 새로운 정부의 출현과 시기를 같이 했다. 당시 최초로 등장한 진보정권은 뜻밖에도 시장주의와 세계화를 표방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연대할 수 있는 토양이었다. '금 모으기'로 상징되는 비정치적 탈이념적 캠페인은 통합의 분위기를 유발해 구제금융의 조기졸업이라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하지만 또 한 차례의 경제위기 앞에선 2008의 한국은 탈색되어 가는 줄 알았던 낡은 이념의 전투장으로 사분오열된 양상을 보였다. 이른바 '좌빨'이라는 사회공학적인 언어의 남발이 그것이다. 모든 좌파가 빨갱이가 아니고 모든 우파가 파시스트가 아니라는 상식은 철저히 무시됐다. 진보성향은 극좌 즉 공산주의자로 매도됐고 온건성향의 보수 역시 도매금으로 수구의 낙인이 찍혀야 했다. 흡사 수십년 전 냉전시대로 회귀한 듯한 사회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남북관계, 중부세 법안, 한·미 FTA협정 등

사회갈등 가운데서 상징적 성격을 띠는 사례를 떠올려 본다. 먼저 남북관계의 경색문제. 그 출발은 새 정부의 상호주의에서 시작된다. 이전 정부의 일방적 '짜르기'가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북에 대한 모든 지원은 전제와 단서가 달린 상호적 거래관계로 전환된다. 핵을 포기하고 내부 민주화를 이루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전 시기에 이루어진 국가 간의 협약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통미봉남'이라는 전략으로 반응했다. 상호주의와 통미봉남이 맞대결을 이루다가 장차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한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최후의 성장동력으로 여겨졌던 북한이 이제는 격한 대결의 상대역으로 불안과 긴장을 자아낸다.

또 하나의 상징적 사회갈등으로 중부세 법안을 들 수 있다.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오래된 레이저노믹스의 도입은 '부자감세'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취해온 부유세를 대신하고자 했던 중부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꺾일만 남게 됐다. 부유층이 더 잘 살아야 총체적인 파이가 늘어난다는 논리

와 사회복지 확대 및 서민층의 구매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발전 자체가 정체된다는 논리가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전자가 승리한 셈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중부세 개정으로 생겨나는 세수부족분을 무엇으로 충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짐작컨대 재산세의 확장일 테데 중하위 계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한·미 FTA협정의 국회비준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멕시코 간에 맺어진 나프타의 결과를 거론한다. 통상 1억2천만 인구 가운데 상위계층 2천만 명 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생활환경을 조성한 것이 나프타라고 한다. 바로 그 같은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한·미 FTA 반대론자들의 핵심적 관점이다.

'절망이 아닌 선택' 할 기회 있을 것

이제 또 한해를 떠나보낸다. 세월과 나이를 떠올리며 감성적 상태에 젖어드는 것이 통상적인 연말의 정서인데 도대체 그럴 기분이 나지 않는다. 지나간 외환위기 때와는 급이 다른 경제재난이 닥칠 거라는 전망이 부디 오류이기만을 바란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오로지 성공과 성장만을 향해 치달아 왔다. 10년 전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지 비슷한 양상이 재현되고 있는 꼴이다. 어떤 책의 제목처럼 '절망이 아닌 선택'을 할 방법이나 기회가 있기는 한 것일까.

일단 국가권력에 대해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절망이 아닌 선택, 믿고 따를 수 있는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고.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정부과제는 환율정책도 증시대책도 아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명을 벗어버리는 일이다. 어쩌면 집권층은 MB노믹스의 진가를 몰라준다고 억울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사한 위기상황 속에서 미국의 새 대통령은 부자증세부터 들고 나왔다.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누군가가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지금 사회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들은 고성장기의 혜택을 전유한 최상위계층이어야 한다. 정부는 그들이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대다수 국민의 마음이 움직여진다. ㉔



글쓴이는 시인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KBS 라디오 독서실 진행과 'TV 책을 말한다'의 자문위원 및 고정패널을 겸하고 있다. 시사칼럼집 '나는 왜 나야만 할까', 서평집 '나의 레종데트르', 음악칼럼집 '텔레만을 듣는 새벽에' 등을 출간했다.